

## 프랑스어 전치사 de의 의미 구조와 문법화\*

박 정 준  
(인천대학교)

### ◆ 국문초록

프랑스어의 de와 같은 전치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문법적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기존 연구의 입장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전치사 de의 쓰임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그 쓰임들을 '출발점을 표현', '특성을 부여', '문법 기능을 수행'이라는 세 개의 부류로 나누어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출발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공간의 영역과 시간의 영역에서 탄도체가 출발점을 떠나 도착점을 향하는 여정의 개념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태적 개념을 갖는다. 반면에, 특성을 부여하는 전치사 de의 보어는 어떤 특정 부류에 대하여 그 부류의 특징을 규정하는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특정 부류의 외연을 한정한다. 이 보어는 한정된 부류와 연결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해당 부류와 공존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전치사 de가 이 경우에는 정태적 개념을 갖는다. 이러한 동태적 개념과 정태적 개념이 모두 퇴색되고 극도로 문법화가 되어 내재적 관계의 개념만 있는 경우가 전치사 de에 의해 동사 원형이 보어로 도입되는 경우이다.

주제어 : 프랑스어 전치사 de, 문법화, 다의성, 영상 도식, 인지언어학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5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전치사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쟁점

전치사에 대한 연구의 서두에서 흔히 언급되는 것이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고 문법적 기능만 수행하는 전치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본 논문도 전치사에 대한 전통문법의 그와 같은 기술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프랑스어 문법서 『바른 쓰임(le bon usage)』은 “전치사는 성과 수가 변화하지 않는 낱말이며, 낱말이나 구 사이의 종속 관계를 설정한다. (§1035)”고 기술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주석을 제시한다.

부가 수식어, 동격 표현, 속사, 주어, 직접목적보어와 같은 문장 성분은 일반적으로 전치사 없이 해당 기능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치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사용된 전치사를 ‘비어 있는 전치사(*préposition vide*)’라고 부른다. (§1035 R)

이 주석과 함께 제시된 아래 표현들을 살펴보자.

- 1 a. Rien *de* nouveau s'est produit.
- b. La ville *de* Genève
- c. Si j'étais *de* vous
- d. *De* t'avoir parlé m'a fait du bien.
- e. Il ne cesse *de* bavarder.

(1.a)에서 전치사 *de*는 *rien*을 수식하는 부가 형용사 *nouveau* 앞에 사용되었다. (1.b)의 *de*는 동격을 표시하며, (1.c)의 *de*는 속사 *vous* 앞에 사용되었다. (1.d)에서는 전치사 *de*가 주어 역할을 하는 동사 원형 앞에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1.e)의 *de*는 직접목적보어의 역할을 하는 동사 원형 앞에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부가 수식어는 *C'est un étudiant intelligent*의 *intelligent*처럼 전치사 없이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Paul, mon fils, est aussi blond*에서 볼 수 있듯이 동격 표현도 전치사 없이 사용된다. 속사에도 *Marie est étudiante*의 *étudiante*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전치사가 없다. 또한, 고유명사와 명사구

는 주어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치사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 직접목적보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전치사 없이 도입될 수 있다. 그런데 위 예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치사 de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치사 de가 의미는 없는 채 문법적 기능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바른 쓰임』은 이에 대하여 비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법서 『프랑스어 체계 문법(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은 전치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전치사는 ‘관계를 나타내는 낱말(mot de relation)’이라는 일반 범주에 속하는 불변화 품사이다. 전치사는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나 마찬가지로 여러 항들을 연결하여 보다 큰 구조에 통합시킨다. 예컨대, 전치사 de는 명사구 la voisine를 명사 chat와 연결하여 명사구 le chat de la voisine의 내부에서 la voisine를 chat의 보어로 만든다. 다양한 쓰임을 통하여 규정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니든 아니든 전치사는 자신이 연결시키는 항들 사이에서 의미 관계를 정립하는 데 쓰인다. (p. 369)

한편, 이 문법서는 의미의 관점에서 전치사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어떤 전치사들은 의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쉽게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ans, sur, sous, à côté de는 공간을 나타내며, grâce à, moyennant은 수단을 나타내고, à cause de는 이유를 나타낸다. 반면, 어떤 전치사들은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모든 쓰임에 공통되는 기본 의미를 상정하는 것이 헛된 듯 여겨진다. 전치사 à, de, en이 가장 흔하게 그와 같은 전치사로 꼽히며, 단지 관계만을 표시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비어 있는(vide)’ 전치사나 ‘색깔 없는(incolore)’ 전치사라고 부른다. (p. 372)

한 마디로, 전치사는 관계를 나타내는 낱말이며, 본 논문에서 분석하려는 de와 같은 몇몇 전치사는 의미가 쉽게 규정될 수 있는 여러 전치사들과 달리 오로지 관계만을 나타내는 데 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술된 ‘비어 있는’ 또는 ‘색깔 없는’ 전치사인 de와 à가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대립을 보이는 예문들이 『프랑스어 체계 문법』에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2. a. Ce train va de Paris à Strasbourg.  
b. Il a vécu au Québec de 1965 à 1971.
3. a. Un bocal contient en moyenne de huit à dix fruits.  
b. Le pays a passé de la dictature à la démocratie.  
c. Le public va du spécialiste au profane (en passant par l'amateur éclairé).  
d. De l'amour à la haine, il n'y a qu'un pas.

『프랑스어 체계 문법』은 구체적 영역 또는 추상적 영역에서 (2)의 예문들은 시공간의 도정(道程)을 나타내고, (3)의 예문들은 수량 관련 궤적 또는 특성 관련 궤적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두 전치사의 대립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전치사 à는 도착점을 향한 방향을 나타내며, 전치사 de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짐을 나타낸다. (p. 372)

본 연구는 『바른 쓰임』과 『프랑스어 체계 문법』이 대표적으로 비어 있는 전치사라고 기술하는 전치사 de에 대한 것으로서 방금 위에서 제시한 대립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즉,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전치사 de가 최소한 위의 예문 (2)와 (3)에서는 전치사 à와 명백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전치사라고 여겨지는 것이 정당하지 의문을 가진다. 다음 장에서는 사전에서 제시하는 전치사 de의 다양한 쓰임들을 분류하여 기술하고, 제3장에서는 분류에 따른 대표적 쓰임들을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겠다. 제4장에서는 전치사 de의 다양한 쓰임에 대한 분석을 통합하여 고찰해봄으로써 본 논문의 분석이 가질 수 있는 학술적 의의를 탐색해 보겠다.

## II. 전치사 de의 쓰임에 대한 일반적 기술

이 장에서는 프랑스어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치사 de의 다양한 쓰임과 용례를 분류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프랑스어-영어 2개어 사전에서 전치사 de

를 영어로 어떻게 옮기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처럼 2개어 사전의 기술을 검토하는 것은 전치사 de의 쓰임을 우선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랍스 영어-프랑스어/프랑스어-영어 사전(Harrap's Shorter Dictionnaire Anglais-Français/Français-Anglais)』에서 제시한 전치사 de의 쓰임과 각 쓰임에 대한 대표적인 보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쓰임	프랑스어 ⇒ 영어	
근원 (from)	il vient de Paris	he comes from Paris
de... en... (from... to...)	errer de ville en ville	to wander from town to town
de... à... (from... to...)	passer de la tristesse à la joie	to go from sadness to joy
동작주, 수단, 도구 (by)	accompagné de ses amis	accompanied by his friends
양태	répondre d'une voix douce	to answer in a gentle voice
원인	sauter de joie	to jump for joy
수치(數値)	ma montre retarde de dix minutes	my watch is ten minutes slow
형용사의 보어를 도입	digne d'éloges	worthy of praise
소유자	le livre de Pierre	Peter's book
재료	un pont de fer	an iron bridge
구별하거나 명시	un problème d'algèbre	an algebra problem
부분 (of)	un verre de vin	a glass of wine
전치사구를 형성	près de la maison	near the house
목적보어를 도입	convenir d'une erreur	to admit an error
부정법 동사를 도입	il est honteux de mentir	it is shameful to lie
동격 또는 술어의 보어를 도입	la ville de Paris	the city of Paris
저술이나 장(章)의 제목에서	de l'amour	(on) love
귀족의 성(姓)에서 소사로 사용	le Prince de Condé	the Prince of Condé

이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전치사 de의 쓰임 가운데 앞의 여섯 가지(근원, de... en..., de... à..., 동작주, 수단, 도구, 양태, 원인)는 각각 제시된 의미를 나타내며, 영어에서 각 의미에 대응되는 전치사인 from, by, in, for로 옮겨지고 있다. 나머지 쓰임들은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사전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경우에

전치사 de는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비어 있는’ 전치사로 여겨지는 of나 to로 옮겨지거나, 또는 표현되지 않는다. 즉, ‘형용사 도입’, ‘부분’, ‘동격’, ‘귀족의 성’의 기능은 of로 옮겨지고, ‘부정법 동사 도입’의 기능은 to로 옮겨진다. ‘소유자’는 ’s 또는 of로 옮겨지고, ‘제목에서’는 on으로 옮겨지거나 표현되지 않는다. 나머지 기능들에서는 de가 영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de는 마찬가지로 구체적 의미를 가진 from, by, in, for로 옮겨지고,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치사 de는 of나 to로 옮겨지거나, 또는 표현되지 않는다. 전치사 de가 영어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옮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이는 앞으로 본 논문의 논지 전개에 있어서 전치사 de의 쓰임을 의미와 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비근한 예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현대 프랑스어 사전(Dictionnaire du français contemporain)』에 기술되어 있는 전치사 de의 쓰임을 살펴보자. 이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13개의 쓰임과 각 쓰임의 대표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장소 : 떠나온 장소, 출발점을 가리킨다. (명사, 형용사, 동사의 보어)  
- Il vient de Paris
2. 시간 : 출발점을 가리킨다. 드물게 날짜나 기간을 가리킨다. - Les vacances scolaires vont de juillet à septembre.
3. 분배 관계, 추정 값, 평가 - gagner tant de l'heure
4. 소속 : 명사의 보어와 함께 사용되는 일반적 쓰임 (être 동사와 함께 쓰여 기원(起源)을 나타낸다.) - le livre de Jean
5. 출발점(몇몇 동사의 제2목적보어) - Je n'ai rien reçu de Pierre.
6. 동사의 보어 : 간접 타동사 구문과 직접 타동사 구문, 주어로 사용된 부정법 동사 앞 - Il use de son dimanche pour aller au cinéma.
7. 수단 : 전치사 avec의 쓰임에 한정된 쓰임 - frapper de la main
8. 원인, 동작주 : 전치사 par의 쓰임에 한정된 쓰임 - pleurer de joie
9. 양태 - manger de bon appétit
10. 특성 부여 (형용사와 동등, 재료, 내용 등) : 명사 뒤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 - une table de bois
11. 동격 명사 - le royaume de Naples
12. 행선지 : 매우 제한된 쓰임 - À quelle heure passe le train de Paris ?
13. 속사 명사 : 제한된 쓰임 - On l'a traité de tâche.

이는 앞의 『해랍스 영어-프랑스어/프랑스어-영어 사전』의 기술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13가지의 쓰임을 아래 스캔본과 같이 전치사 à의 쓰임들과 나란히 하나의 도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sup>1)</sup>

EMPLOIS	à	de	ABSENCE DE PRÉPOSITION
1. Lieu.	Indique le lieu où l'on est et où l'on va, le point d'arrivée (compl. de nom, de verbe et d'adjectif). <i>Il se trouve à Lyon. Il est allé à Bordeaux. Il habite à Paris (mais, avec un déterminant : dans la belle ville de Toulouse). Il va à la campagne, au théâtre. L'arrivée à la gare. Sa naissance à Paris. Avoir mal à la tête (localisation). Etre pris aux tempes.</i>	Indique le lieu d'où l'on vient, le point de départ (compl. de nom, d'adjectif et de verbe). <i>Il vient de Paris, de la campagne. Il m'a fait venir de Rennes. Il est originaire de Marseille, d'une petite ville de province. Il est natif du Poitou. Il est né de parents universitaires (origine).</i>	Indique, plus rarement que « à », le lieu où l'on est (compl. de verbe). <i>Il habite Paris. Il habite le 7<sup>e</sup> arrondissement (dans le 7<sup>e</sup> arrondissement). Il loge, il demeure rue du Montparnasse. J'y suis allé jadis. J'en reviens.</i>
2. Temps.	Indique la date, le moment précis, le point d'arrivée, la durée. <i>Il viendra à six heures, à cinq heures précises. Perdre toute chance au départ. Le renvoi à huitaine. Des bons à cinq ans. Louable à l'année. À la veille de Pâques. Travailler du matin au soir.</i>	Indique le point de départ, plus rarement la date ou la durée. <i>Les vacances scolaires vont de juillet à septembre. Il viendra de bonne heure. Il ne fait rien de la semaine; il n'a rien fait de tout le mois. Il a débarqué de nuit. Un mort de quatre jours. Un travail de trois ans.</i>	Indique la date. <i>Il viendra dimanche, il arrivera le matin. Il est parti le 7 juillet. Un beau jour, il a disparu. Je l'ai vu une fois. La veille de Pâques, à la plu.</i>
3. Rapport distributif, approximation, évaluation.	<i>Faire du cent à l'heure. Etre payé au mois. Vendu au détail. Travailler aux pièces. La vente à cent francs de certains articles. Cinq à six heures (= environ).</i>	<i>Gagner tant de l'heure.</i>	<i>Articles vendus dix francs pièce, cent francs le kilo. Etre payé dix francs l'heure.</i>
4. Appartenance.	Emploi limité au verbe « être » et au pronom pers. complément du nom, ou à la langue pop. <i>Ce livre est à Jean. C'est un ami à moi. Ceci est à nous. Il a une manière bien à lui d'agir.</i>	Emploi général avec un nom complément du nom. <i>Le livre de Jean. C'est une lettre de François. C'est bien de lui (indique la provenance avec le verbe « être »).</i>	<i>Cela lui est personnel. Cette maison nous appartient. Cela leur est propre. Ce défaut t'est particulier. (Il n'y a généralement pas de préposition « à » avec les pronoms personnels dépendant d'adjectifs ou de verbes, sauf « être ».)</i>
5. Attribution ou provenance (objet secondaire de certains verbes).	Emploi général, surtout attribution. <i>Il a donné (prêté) un livre à son frère. Il a confié (livré) un secret à un ami. Il a arraché une confidence à quelqu'un. Puiser de l'eau à une source. Emprunter de l'argent à un ami.</i>	Emploi limité à la provenance. <i>Je n'ai rien reçu de lui, de Pierre.</i>	Emploi limité aux pronoms personnels. <i>Il lui a confié son secret. Il lui a arraché la serviette des mains.</i>
6. Complément d'un verbe (ou d'un nom d'action). Les verbes qui ont plusieurs constructions peuvent avoir plusieurs sens.	Transitifs indirects construits avec « à » (et un nom) : <i>Il obéit à son père (l'obéissance aux parents). Il manque à sa parole. Résister à l'ennemi (la résistance à l'ennemi). Il est fidèle à sa parole. Il rêve à son avenir. Il demande à sortir. Il aime à aller au cinéma.</i>	Transitifs indirects construits avec « de » (et un nom ou un pronom) : <i>Il use de son dimanche pour aller au cinéma. Il jouit du repos. Il manque de savoir-faire. Un manque de parole. Il se sert de son couteau. Nous parlons de lui. L'amour de la patrie. Il rêve de ses vacances passées.</i> Transitifs directs construits avec « de » (et un infinitif) : <i>Il lui demande de partir. Je crains de la voir.</i>	Transitifs directs ou transitifs indirects (« à », avec pronom personnel) : <i>Il use ses vêtements. Il manque son train. Cela sert son ambition. Il lui obéit. Il aime aller au théâtre.</i> L'infinitif sujet : <i>Mentir est honteux.</i>

1) 도표를 스캔한 것은 참고삼아 원래 모양을 보이기 위해 일부분만 제시하고, 논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에서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하겠다.

『현대 프랑스어 사전』에서는 전치사 de의 쓰임과 à의 쓰임이 모두 이와 같이 13개가 대비되어 있기에 제1장에서 제시한 두 전치사의 대립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sup>2)</sup> 그러한 대립이 특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쓰임들은 다음과 같다. (각 쓰임의 설명과 함께 예문은 대표적인 것만 제시하겠다.) 우선, 제1항의 ‘장소’와 제2항의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전치사 de와 à의 쓰임은 매우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대립을 보인다.<sup>3)</sup>

EMPLOIS	de	à
1. Lieu	Indique le lieu d'où l'on vient, le point de départ (compl. de nom, d'adjectif et de verbe). <i>Il vient de Paris. Il est originaire de Marseille, d'une petite ville de province. Il est né de parents universitaires (origine).</i>	Indique le lieu où l'on est et où l'on va, le point d'arrivée (compl. de nom, de verbe et d'adjectif). <i>Il se trouve à Lyon. Il est allé à Bordeaux. Il habite à Paris. Avoir mal à la tête (localisation).</i>
2. Temps	Indique le point de départ, plus rarement la date ou la durée. <i>Les vacances scolaires vont de juillet à septembre. Il a débarqué de nuit.</i>	Indique la date, le moment précis, le point d'arrivée, la durée. <i>Il viendra à six heures. Louable à l'année.</i>

제10항의 ‘특성’의 개념도 두 전치사의 쓰임이 다음과 같이 대비된다.

- 
- 2) 13개의 쓰임 가운데 전치사 de와 à의 대립이 없이 de의 쓰임만 기술되어 있는 항목은 유일하게 제11항의 ‘동격 명사’이다. 쓰임의 보기로는 La ville de Paris. On abuse du mot de « beau » 등이 제시되어 있다.
- 3) 사전의 원래 도표에는 4번째 난에 absence de préposition이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전치사 de 또는 à가 없는 채 해당 항목의 쓰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기술되어 있으나, 본 논문의 논지와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옮겨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장소’에 대한 항목에는 Il habite Paris나 J'en reviens과 같은 예문이 제시되어 있고, ‘시간’에 대한 항목에는 Il viendra dimanche나 La veille de Pâques, il a plu와 같은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원래 도표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전치사 à가 앞에 위치하지만 전치사 de에 대한 본 논문에서는 de에 대한 기술을 앞에 위치시키겠다.

EMPLOIS	de	à
10. Caractérisation (équivalent d'un adjectif) : matière, contenu, convenance, etc.	Emploi très étendu après un nom avec des valeurs variées. <i>Un tissu de laine. une barre de fer (matière). Une tasse de café (contenu)</i>	<i>Un avion à réaction. Machine à vapeur. Boire à volonté.</i>

이 항목에서 une tasse de café와 같이 내용물을 나타내는 ‘특성’은 아래 전치사 à의 제12항에서 보이는 ‘행선지, 용도’와도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EMPLOIS	de	à
12. Destination	Emploi très limité. <i>À quelle heure passe le train de Paris ? (celui qui va à Paris ou qui vient de Paris).</i>	Emploi général. <i>Tasse à café. Donner à boire. Il est apte à n'importe quel travail. Il est près du départ : prêt à partir.</i>

예를 들어, 두 개의 표현 une tasse de café와 une tasse à café에서 다른 것은 오로지 전치사뿐인데 각각 ‘내용’과 ‘용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대비된다는 것이다.

『현대 프랑스어 사전』에서 이처럼 두 전치사의 쓰임들을 대비시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치사들이 흔히 대표적으로 ‘비어 있는’ 전치사라고 여겨지는 것과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의미가 비어 있다면 비교될 대상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즉, 의미가 없다면 이와 같이 명백한 대비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치사 de에 대한 『프티 로베르 프랑스어 사전(Le Nouveau Petit Robert)』의 기술을 살펴보자. 이 사전에서는 전치사 de를 “두 개의 낱말 또는 두 개의 구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 쓰이며, 성수 변화를 하지 않는 낱말”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전치사 de의 쓰임을 우선 ‘분석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와 ‘의미에 앞서는 문법 기능’으로 분류한다. 첫째 부류는 다시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원천을 표시’와 ‘소속 관계, 한

정을 표시'로 하위 분류된다. 이러한 각 부류의 쓰임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 분석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II. 의미에 앞서는 문법 기능
A.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원천을 표시	B. 소속 관계, 한정을 표시	1. 행위의 목적, 대상을 도입 2. 동격 3. (traiter, qualifier 동사와 함께) 속사 4. 진주어로 사용되는 동사 원형 앞 5. 형용사, 과거분사, 부사 앞
1. 장소, 출발지 2. 시간 3. 비유적 원천 4. 방식 5. 측정 단위 6. 행위 주체, 작가	1. 소속 2. 특성, 한정 3. 재료 4. 종류 5. 내용물 6. 집합의 총체 7. 제한	

각 쓰임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을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A.1. 장소, 출발지 : aller de Paris à Marseille
- I.A.2. 시간 : du 1<sup>er</sup> janvier au 31 décembre
- I.A.3. 비유적 원천 : mourir de faim
- I.A.4. 방식 : accepter de grand cœur
- I.A.5. 측정 단위 : avancer d'un pas
- I.A.6. 행위 주체, 작가 : les œuvres de Beckett
- I.B.1. 소속 : le fils de Pierre
- I.B.2. 특성, 한정 : la valeur d'une idée
- I.B.3. 재료 : sac de papier
- I.B.4. 종류 : couteau de cuisine
- I.B.5. 내용물 : verre d'eau
- I.B.6. 집합의 총체 : les moutons d'un troupeau
- I.B.7. 제한 : être rouge de figure
- II.1. 행위의 목적, 대상을 도입 : douter de la vérité
- II.2. 동격 : la ville de Paris
- II.3. 속사 : Il qualifie ce journal de tendancieux
- II.4. 진주어로 사용되는 동사 원형 앞 : Il est ennuyeux de rester chez soi.
- II.5. 형용사, 과거분사, 부사 앞 : Nous avons trois jours de libres.

『포티 로베르 프랑스어 사전』의 기술은 앞의 두 개 사전의 기술과 달리 전치사 de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문법 기능을 가지는 경우를 명시하여 분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해랍스 영어-프랑스어/프랑스어-영어 사전』에서 제시한 쓰임 가운데 ‘수치’, ‘소유자’, ‘재료’, ‘부분’에 대하여 본 논문은 from, by, in, for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전치사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여겼는데 이 사전에서는 각각 ‘측정 단위’, ‘소속’, ‘재료’, ‘내용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분석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로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전치사의 쓰임을 의미와 기능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B. 소속 관계, 한정을 표시’의 쓰임들을 ‘A.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원천을 표시’의 쓰임들과 같이 온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류할 만한 논리적 기준이 최소한 이 사전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Ⅲ. 전치사 de의 의미 분석

전치사 de의 쓰임에 대하여 앞 장에서 정리한 일반적 기술을 토대로 전치사 de를 인지언어학의 틀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세 개의 사전이 제시하고 있는 쓰임들은 아래와 같이 ‘출발점을 표현’, ‘특성을 부여’, ‘문법 기능을 수행’이라는 세 개의 부류로 분류하여 분석하겠다.

	출발점을 표현	특성을 부여	문법 기능을 수행
해랍스 사전	근원 de... en... de... à... 수치	소유자 재료 구별하거나 명시 부분 저술의 제목 귀족의 성	동작주, 수단, 도구 양태 원인 형용사의 보어를 도입 전치사구를 형성 목적보어를 도입 부정법 동사를 도입 동격

	출발점을 표현	특성을 부여	문법 기능을 수행
현대 프랑스어 사전	장소 시간 분배 관계 소속 출발점	특성 부여	동사의 보어 수단 원인, 동작주 양태 동격 명사
프티 로베르 사전	장소, 출발지 시간 비유적 원천 방식 측정 단위 행위 주체, 작가	소속 특성, 한정 재료 종류 내용물 집합의 총체 제한	행위의 목적, 대상을 도입 동격 속사 진주어 동사 원형 앞 형용사, 과거분사, 부사 앞

이렇게 분류된 각 부류에 대하여 각 부류를 대표한다고 여겨질 수 있을 쓰임들을 중심으로 전치사 *de*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부류인 ‘출발점을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4)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된 전치사 *de*가 가장 전형적으로 출발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sup>4)</sup>

#### 4. Ce train vient de Lyon

이 문장에서 술어 동사는 주어로 표현된 어떤 실체가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전치사 *de*는 그 실체의 출발지점을 전치사의 보어로 도입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치사 *de*가 출발점을 표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은 의미를 표상하는 데 있어서 탄도체와 지표의 개념을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탄도체와 지표의 개념, 그리고 전치사에 대한 인지언어학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de*의 의미 분석을 이어가겠다. Langacker(1999: 8)는 탄도체와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관계는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초점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4) 출처를 밝히지 않은 예문은 필자가 작성하여 원어민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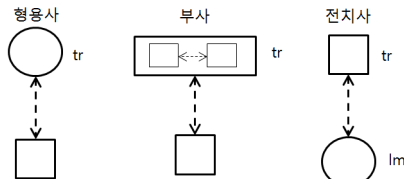
이를 ‘참여자’라고 부른다. 참여자들은 관계 윤곽 내부에서 특별하게 현저하다는 사실로 두드러진다. 참여자들이 나타내는 현저함의 유형은 전경/배경이라는 구성 조직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가장 현저한 요소는 ‘탄도체’로 불리며, 이는 윤곽을 부여 받은 관계 내부에서 제1모습으로 규정된다. 관계가 두 번째 초점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표’라고 부르며 제2모습으로 규정한다.

또한, Vandeloise(1986: 34)는 탄도체와 지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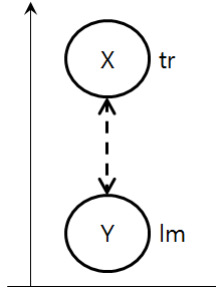
지표의 위치는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인데 비해 탄도체의 위치는 새로운 정보이다. 또한, 탄도체는 크기가 작고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에 지표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고 알아보기 쉽다. 마지막으로, 탄도체는 흔히 유동적이며 움직일 수 있지만 지표는 움직일 수 없고 안정적이다.

이와 같은 탄도체와 지표의 개념은 공간의 위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다. 3차원의 공간에서 탄도체는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대상인 실체이며 지표는 탄도체의 위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점이다. 한편, 인지언어학에서 전치사는 부사나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로 고려되며, 탄도체와 지표가 모두 물체인 점에서 부사나 형용사와 구별된다.5) 예를 들어, La lampe est au-dessus de la table에서 전치사구 au-dessus de는 탄도체 la lampe와 지표 la table 사이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다. 이 관계는 아래와 같이 영상 도식6)으로 표상될 수 있다.

5) 형용사는 물체가 탄도체가 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부사는 또 다른 관계가 탄도체가 되는 관계를 나타낸다. 형용사, 부사, 전치사의 개념을 Langacker(2008: 116)는 다음과 같이 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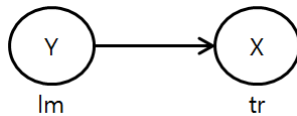
6) Langacker(2008: 32)는 영상 도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지언어학



[그림 1]

이 영상 도식은 탄도체(trajector, tr로 표기)인 la lampe(X)가 수직축으로 표현된 수직 공간에서 지표(landmark, lm으로 표기)인 la table(Y)에 대하여 그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점선으로 된 양화살표는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표상한다.

전치사 de의 분석으로 돌아와서, 앞의 (4) Ce train vient de Lyon과 같은 문장에서 사용된 전치사 de를 탄도체와 지표의 개념, 그리고 전치사의 정의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장에서 탄도체는 ce train이고 지표는 Lyon이다. 그리고 전치사 de는 탄도체가 출발한 공간적 출발점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치사 de가 나타내는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이 영상 도식은 탄도체 X가 지표 Y와 떨어져 있고, Y가 X의 공간적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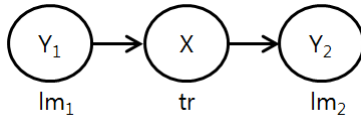
[그림 2]

은 영상을 통한 설명을 자주 사용한다. 한 세트의 영상 도식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다. 영상 도식은 일상에서 겪는 경험, 특히 시야(視野), 공간, 움직임, 힘 등과 관련된 경험에서 추출된 활동 양식이 도식화된 것이다.

이번에는 아래 (5)와 같이 공간적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de와 도착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à가 함께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자.

#### 5. L'avion va de Paris à Rome

이 문장에서 전치사 de와 à의 탄도체는 l'avion이며 전치사 de의 지표는 Paris이고 전치사 à의 지표는 Rome이다. 전치사 de의 지표를  $lm_1$ 로 표기하고 전치사 à의 지표를  $lm_2$ 로 표기하자. 출발점과 도착점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을 영상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de는 예문 (4)와 (5)에서처럼 공간의 영역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아래 문장에서도 같이 시간의 영역에서도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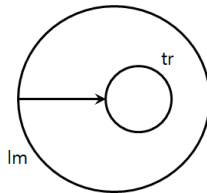
#### 6. Jean travaille de neuf heures à onze heures

동일한 전치사나 동일한 표현이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모두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은 자연 언어에서 흔한 현상이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시간을 공간에서 형상화하는 것이다. 공간의 영역에서 각각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de와 전치사 à가 시간의 영역에서는 출발시점과 도착시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 예문 (6)에서 탄도체는 Jean이며 전치사 de의 지표는 9시이고 전치사 à의 지표는 11시이다. 앞의 예문 (5)에서 전치사 de와 à를 통해 비행기가 파리라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로마라는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이 표현된다면, 예문 (6)에서는 장이 9시라는 시점으로부터 11시라는 시점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표현된다. 그러므로 시간의 영역에서 출발시점과 도착시점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 표현도 공간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의 [그림 3]으로 표상될 수 있겠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전치사 de의 둘째 부류로 제시한 ‘특성을 부여’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흔히 ‘부분-전체’ 관계 또는 ‘용기-내용물’ 관계로 불리는 표현부터 분석하도록 하겠다.

- 7. a. un verre de vin
- b. certains de mes amis

(7.a)가 가리키는 것은 포도주가 담긴 물체로서 잔이 아니라 잔에 담긴 한 잔 분량의 포도주이다. 이는 un verre à vin이 포도주를 담는 데 사용되는 물체로서 잔인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sup>7)</sup> 즉, un verre de vin은 한정할 수 없는 포도주가 제한된 분량의 용기에 담겨 있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전치사 de는 분량을 제한하는 용기를 탄도체로 도입하며, 내용물을 나타내는 보어를 지표로 도입한다. (7.b)는 나의 친구들 전체가 아닌 몇몇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일부를 뽑아 이루어진 부분집합 또는 그 부분집합의 원소들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de는 제한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탄도체로 도입하고, 전체집합 또는 전체집합의 원소들을 나타내는 보어를 지표로 도입한다. 이와 같은 ‘부분-전체’ 관계 또는 ‘용기-내용물’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상될 수 있겠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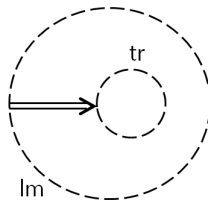
7) Bosredon & Tamba(1991: 48-54)는 ‘명사 à 명사’ 구조의 표현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하나는 용도를 나타내는 부류로 verre à vin, verre à dents, sac à dos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서 두 명사는 서로 다른 특질의 개념을 나타내며, 둘째 명사는 ‘~에 사용되는’, ‘~을 목적으로 삼는’, ‘~으로 작동되는’ 등의 외재적 관계를 나타낸다. 또 다른 유형은 지시 대상의 형태적 특징을 나타내는 부류이다. 그러한 유형에서 ‘명사 à 명사’의 둘째 명사는 지시 대상의 부분, 속성, 변별 특징을 나타낸다. 예컨대, instrument à cordes와 bonnet à poil은 각각 악기와 모자에 현과 깃털이 있음을 나타낸다.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 있는 것은 집합론에서 전체집합과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일반적 도식과 같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표와 탄도체의 관계는 단순한 전체집합과 부분집합의 관계가 아니라, 지표에서 특정하게 한정된 분량이 뺏혀서 탄도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위 영상 도식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지표에서 탄도체로 향하는 화살표를 통해 나타난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둘째 부류 가운데 아래 표현과 같이 재료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자.

#### 8. un pont de fer

이 표현에서 다리와 철의 관계는 해당 다리가 온통 철로 이루어진 다리라고 하더라도 ‘부분-전체/용기-내용물’ 관계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겠다. ‘부분-전체/용기-내용물’ 관계는 마치 어떤 물질을 그대로 용기에 일정량 옮겨 담은 것과 같은 관계인 반면에, 위 표현의 ‘재료’ 관계에서는 철의 본질이 변형되지 않은 재료들로 다리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레고 블록 조각과 같이 필요에 따른 여러 모양의 철들이 조립되어 다리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표현에서 전치사 de는 완성된 실체를 탄도체로 도입하고 그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을 지표로 도입한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위 그림에서 완성된 실체인 작은 원이 재료인 큰 원 안에 있는 것은 ‘부분-전체/용기-내용물’ 관계와 유사하게 수량이 한정되지 않은 물질의 일부로부터 실체가 만들어졌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재료와 완성물의

관계는 엄밀한 전체-부분 관계가 아니므로 두 원이 점선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탄도체와 지표를 연결하는 선이 두 겹인 것은 재료와 완성된 실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마지막 부류로 ‘문법 기능을 수행’하는 전치사 *de*의 쓰임을 분석하겠다. 앞의 세 개 사전에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된 쓰임 가운데 여기에서는 동사 원형을 전치사의 보어로 도입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전치사 *de*의 쓰임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논지 전개에 일관성을 위하여, 동사 원형을 도입할 때 전치사 *à*와 대비되는 경우를 두 가지, 그리고 전치사가 쓰이지 않는 경우와 대비되는 경우를 한 가지 분석하겠다.

첫째, 아래 예문을 통하여 *s’empresse de*와 *s’empresse à*의 의미를 살펴보자.

10. a. Il s’empresse d’ouvrir la porte.
- b. Il s’empresse à satisfaire ses patrons.

『프티 로베르 프랑스어 사전』에 의하면, *s’empresse de*는 ‘무엇을 서둘러서 하다’는 뜻인 반면에, *s’empresse à*는 ‘누군가에게 봉사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열의와 열정을 보인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주체의 입장에서 고려된 정신적 개입의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 *à*가 쓰인 경우에는 열의나 열정이 상정되며, 전치사 *de*가 쓰인 경우는 단지 움직임만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Shyldkrot & Kemmer(1995 : 214)는 위 예문에 대해서 전치사 *à*가 전치사 *de*보다 주체의 관점에서 더 큰 활동을 함축한다고 기술한다. 마찬가지로, *se mêler à*는 어떤 일에 합류하거나 가담한다는 뜻으로 *s’empresse à*와 같이 긍정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에, 참견한다는 뜻의 *se mêler de*는 차라리 비난의 느낌을 준다.<sup>8)</sup>

다음으로 동사 원형을 보어로 도입할 때 전치사 *de*가 쓰이는 *décider*와

8) *habituer à/déshabituer de*나 *associer à/dissocier de*와 같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대립되는 표현에서 전치사 *à*는 긍정의 의미와 함께 쓰이며 전치사 *de*는 부정의 의미와 함께 쓰인다.

전치사 à가 쓰이는 se décider를 비교해 보자.

11. a. Nous avons décidé de partir.  
b. Nous nous sommes décidés à partir.

예문 (11.a)에서는 주체가 결정을 내리는 것과 그 결정이 실현되는 것 사이에 흘러간 시간이 함축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11.b)에서는 결정과 실현 사이의 시간이 고려되지 않는다. 즉, 주체는 그 결정 사항을 즉시 수행할 수도 있고 나중에 수행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체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숙고와 망설임의 기간이 필요했으며, 아마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내적 갈등을 극복해야 했음이 표현된다. 그러므로 전치사 à가 사용된 (11.b)는 de가 사용된 (11.a)보다 길고 강한 정신활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Shyldkrot & Kemmer(1995 : 215)는 (11.a.b)를 분석하며 어떤 동사가 대명동사의 형식으로 쓰일 때가 일반적인 형식으로 쓰일 때보다 더 길고 강한 정신활동을 함축하는 의미 차이를 전치사 à와 de의 대립이 반영한다고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Shyldkrot & Kemmer(1995: 215)의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12. a. Elle m'avait dit de ne pas souffrir.  
b. Elle m'avait dit ne pas souffrir.

예문 (12.a)는 명령으로서 그녀가 나에게 내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는 뜻이며, (12.b)는 단언으로서 그녀가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고 나에게 말했다는 뜻이다. (12.a)에서와 같이 dire처럼 의사 전달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서 전치사 de가 동사 원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나타낸다. 전통 문법에서 직접화법의 명령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경우에 동사 원형을 전치사 de와 함께 사용한다고 설명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12.b)는 주절의 주어와 평서문 형식의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종속절의 주어는 생략된 채 동사 원형만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단언을 표현한다.<sup>9)</sup>

#### IV. 전치사의 다의성과 문법화

본 논문은 프랑스어의 *de*나 *à*와 같은 전치사에 대하여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견해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사전 가운데에서도 『프티 로베르 프랑스어 사전』은 부류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전치사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runot & Bruneau(1933: 418)<sup>10)</sup>는 *de*와 *à*를 ‘비어 있는’(vide) 전치사로 기술하고, avec, en, par, pour, sur를 ‘일부분 비어 있는’(demi-vide) 전치사로 기술함으로써, 이 두 종류의 전치사를 ‘가득 찬’(plein) 전치사와 구별한다. 또한,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비어 있는 전치사는 원래의 뜻이 사라진 ‘죽은’(mort) 전치사로서, 예컨대 *de*는 더 이상 출발점을 나타내지 않으며 *à*는 더 이상 도착점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Gougenheim(1959: 6)<sup>11)</sup>은 비어 있는 전치사란 본질적 가치가 더 이상 지각될 수 없을 만큼 퇴색된 것이라고 정의하며, 프랑스어에서는 *de*가 유일한 비어 있는 전치사임을 보이려고 했다. 한편, Spang-Hanssen은 1963년에 출판된 저서의 제목인 *Les prépositions incolores du français moderne*에서 ‘무색’ 전치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Vandeloise(1993: 6)는 Spang-Hanssen이 사용한 ‘무색’이라는 용어 때문에 전치사 분석에 대한 방향이 선부르게 결정될 위험은 없다고 기술한다. ‘무색’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어떤 전치사가 무색 전치사인지 알아야 비로소 ‘무색’이 뜻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pang-Hanssen 이전의 연구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전치사의 의미가 결여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쓰임이 문법적인 경우, 쓰임

9) 전치사 *de*와 *à*의 대립, 그리고 전치사 *de*가 쓰이는 경우와 쓰이지 않는 경우의 대립이 모두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장에서 분석하듯이, 동사 원형을 보어로 도입하는 전치사 *de*의 대표적 기능은 내재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겠다. 동사 원형을 보어로 도입하는 전치사 *de*와 *à*에 대한 연구로는 통시적 분석을 통해 두 전치사의 문법화 과정을 다룬 다음 논문이 흥미롭다. Martineau (France), « Grammaticalisation et changement de paramètre : la préposition *à*, élément introducteur d'un complément infinitif », *Scolia* 15, 2002 : 71-85.

10) Vandeloise(1993: 5)에서 재인용.

11) Vandeloise(1993: 5)에서 재인용.

이 복합적인 경우, 의미가 과도하게 추상화를 이루는 경우가 그 세 가지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Vandeloise(1993: 7-8)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우선, 쓰임이 문법적인 것과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입장은 통사론과 의미론의 독자성을 전제하는 생성문법과 같은 언어 이론에 근거를 한 것이다. 인지언어학에서 주장하듯이 통사론을 인간 경험과 병행하여 조직함으로써 통사론과 의미론이 뚜렷한 경계가 없는 연속체<sup>12)</sup>로 고려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준이 재고되어야 한다. 전치사 de가 문법적 기능만을 갖는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명사나 명사구 또는 동사 원형을 도입하는 데 쓰이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서조차 전치사 de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 전치사 de가 동사 원형을 도입하여 흔히 이유를 나타낸다고 고려되는 heureux de voyager에 대하여 Bidaud(2010: 3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표현에서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은 여행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행복은 여행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여행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유발하는 것이므로 이유의 개념에서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짐’의 개념도 드러나는 것이다. Bidaud(2010: 35)는 user de rus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술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술책을 불러낸다는 것이고, 이는 술책으로부터 행동 방식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술책으로부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우 약하기는 하지만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짐’의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의미가 결여되었다고 고려하는 전치사들의 의미가 avec나 sur와 같은 전치사가 가지는 정확한 용례와 비교하자면

12) Langacker(1999: 18)는 어휘와 문법이 연속체(continuum)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연속체이므로 연속선상의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도 상징적으로 기술된다. 같은 원리에 대하여 Achard(1998: 20-23)는 “언어는 상징적 구조의 연속체를 나타낸다.”고 표현한다. Langacker(2009: 2)는 연속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단위의 지위를 가지는 특정 표현은 전통적으로 어휘 항목으로 인정된다. 그보다 구조도식적인 단위는 전통적으로 문법으로 여겨진 것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며, 인지 언어학에서 어휘 항목과 문법은 연속체를 이룬다. 어휘 항목이든 문법이든, 모든 구성은 상징적 구조의 결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Langacker(2008: 20)는 “어휘와 문법은 뚜렷하게 양분되는 대신에 점진적 단계를 구성한다.”고 명시한다.

매우 희미하기는 하지만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쓰임이 복합적이라는 기준은 로쉬(Rosch)의 원형 이론에 따라서 범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에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원형 이론은 범주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정의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대표에 대한 관계로 정의한다. 즉, 가장 적절한 대표를 주변 지역의 대표와 비교하여 더 이상 해당 범주에 속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 범주의 경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의미가 결여되었다고 여기는 전치사는 사실상 의미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그 전치사의 쓰임 가운데 의미가 결여된 쓰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전치사의 쓰임 전체에 대해서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제2장의 『프티 로베르 프랑스어 사전』에서 제시한 18개의 쓰임 가운데 ‘의미에 앞서는 문법 기능’으로 분류된 쓰임은 5개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부류에 속하는 쓰임에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결여된 쓰임은 18개 가운데 5개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추상화에 대한 기준도 원형 이론에 따른 범주의 정의를 통하여 반박될 수 있다. 의미가 추상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해당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쓰임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의미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득 찬’ 전치사로 고려될 수 있는 devant의 의미를 『프티 로베르 프랑스어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사람의 얼굴이나 사물의 정면과 같은 쪽
2. 비유적으로,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3. 사람이나 사물의 정면 방향으로

제시된 의미가 이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과 비교하자면, 전치사 de에 대하여 『프티 로베르 프랑스어 사전』이 제시하고 있는 세 부류는 그 자체로 보자면 위의 devant의 세 가지 의미처럼 서로 공통된 개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3장에서 우리가 분석했듯이 대표적인 몇몇 쓰임에 한정하여 일반화를 시도한다면 이와 같은 ‘비어 있는’ 전치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훨씬 덜 추상적인 표상이 도출될 것이다.

인지언어학은 Langacker(1999: 76)가 영어 전치사 of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명시하였듯이 대부분의 언어 표현들을 다의어로 고려한다. 특히, 전치사가 보이는 다의성은 Tyler & Evans(2007: 47)가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하여 기술한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유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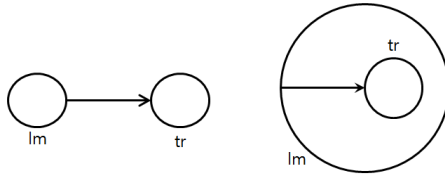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한 성질을 지닌다. 지난 몇 천 년 동안 인간이 공간을 지각하는 방법은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마찬가지로 변화하지 않았을 공간 관계를 부호화하는 것이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이며, 또한 전치사는 닫힌 부류를 구성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치사에 속하는 어휘 형식에 연결된 일차적 의미의 본질은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다른 품사에 연결된 일차적 의미와 다소 다른듯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Tyler & Evans(2007: 46)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원형성의 개념이 전치사 de의 다의성을 고찰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원형성의 개념이 사물의 범주화를 고려하거나 지각과 인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유용했던 반면에, 관계나 과정과 같이 사물이 아닌 것에 대한 어휘의 범주화를 고려할 때는 연구에 유용한 개념인지 그리 명확하지 않다. Herskovits(1986)는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원형보다는 ‘이상적’이라는 용어를 선호함으로써 원형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완전히 피했다.

제4장에서 지금까지 기술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제3장의 분석 내용을 통합적으로 되살펴보며 전치사 de의 다의성과 문법화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제3장에서 ‘출발점을 표현’과 ‘특성을 부여’로 나눈 두 부류에 대하여 각각 Bidaud(2010)와 Shyldkrot & Kemmer(1995)는 동태적 개념과 정태적 개념을 나타낸다고 분석한다. 출발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공간의 영역과 시간의 영역에서 탄도체가 출발점을 떠나 도착점을 향하는 여정의 개념이 상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특성을 부여하는 전치사 de의 보어는 어떤 특정 부류에 대하여 그 부류의 특징을 규정하는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특정 부류의 외연을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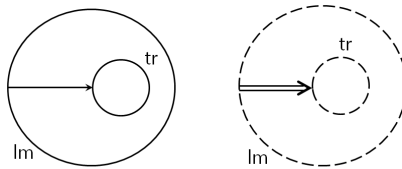
Bidaud(2010: 35)는 이 보어가 한정된 부류와 연결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해당 부류와 공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전치사 de가 정태적 개념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 두 부류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영상 도식을 다시 살펴보자.



[그림 6]

‘출발점을 표현’의 부류에 대한 첫째 도식에서 화살표는 직관적으로 인식되듯이 공간과 시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태적 개념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특성을 부여’의 부류에 대한 둘째 도식에 있는 화살표는 큰 원의 내부에 존재함으로써 전체집합에서 일부를 뽑아 부분집합이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낼 뿐 공간이나 시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정태적 개념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성을 부여’의 부류에서 ‘부분-전체/용기-내용물’ 관계와 ‘재료’ 관계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구별된 두 관계의 영상 도식을 나란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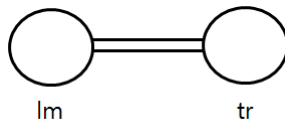


[그림 7]

두 영상 도식의 모양이 같은 것은 두 개의 도식이 나타내는 개념이 모두 특성 부여라는 것을 보여준다. 두 영상 도식의 차이는 두 번째 그림에서 원이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화살표가 접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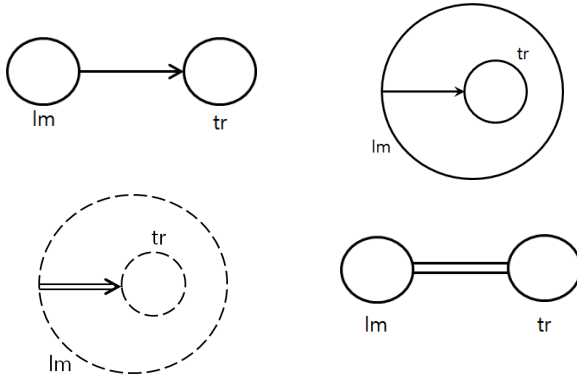
장에서 분석했듯이, 원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료’ 관계는 엄밀한 전체집합-부분집합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점선은 재료와 완성물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나타낸다. ‘부분-전체/용기-내용물’ 관계에서는 부분이 전체로부터 뽑혀 형성되었으므로 분리의 개념이 존재하는 반면에, ‘재료’ 관계에는 그러한 분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재료와 완성물 사이에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Shyldkrot & Kemmer(1995: 218)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내재적 관계’라고 부른다.

세 번째 부류인 ‘문법 기능을 수행’에 있어서는 전치사 de가 동사 원형을 보어로 도입하는 표현들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을 보어로 요구하는 구문에는 술어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와 동사 원형이 나타내는 행위 사이에 내재적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décider de partir라는 표현에서 décider의 개념은 반드시 결심의 대상이 되는 partir의 행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Shyldkrot & Kemmer(1995: 218)는 동사 원형을 보어로 요구하는 구문에 존재하는 이러한 내재적 관계가 전치사 de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고 기술한다. 전치사 de가 내재적 관계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재적 관계 이외의 다른 특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치사 de가 사용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commencer à, finir par, compter sur 등과 같은 표현에서 전치사 à, par, sur 등이 나타내는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동사 원형을 도입하는 데 전치사 de가 쓰인다는 것이다. Langacker(1999: 76)가 내재적 관계를 표상하는 영상 도식으로 제시한 아래 그림을 이 부류의 전치사 de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림 8]

지금까지 제시한 영상 도식들을 모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출발점을 나타내는 부류의 영상에서는 탄도체의 여정이 화살표로 표상된다. 이러한 화살표가 부분과 전체의 관계 또는 용기와 내용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상에서는 원 안에 존재함으로써 이동의 개념이 퇴색된다. 이동의 개념은 퇴색되었지만 전체집합으로부터 부분집합이 구성되었음이 여전히 화살표를 통해 표현된다. 한편, 진정한 부분-전체의 관계가 아닌 동시에 역설적으로 내재적 관계를 나타내는 재료와 완성물의 표현에서는 부분집합과 전체집합의 개념이 퇴색되어 점선으로 표상되며 내재적 관계의 개념은 부각되어 화살표가 겹선으로 표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동의 개념과 특성 부여의 개념이 모두 퇴색되고 극도로 문법화가 되어 내재적 관계의 개념만 두 겹의 선으로 표시된 영상이 동사 원형을 보어로 도입하는 경우를 표상한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전치사 de가 다른 언어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다의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치사 de의 쓰임들이 절대적으로 위의 네 가지 영상 가운데 하나로 표상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치사 de가 동사 원형을 보어로 도입하여 내재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제4장의 앞부분에서 heureux de와 user de에 대하여 분석했듯이 ‘멀어짐’의 개념을 담고 있을 수 있다. 또한, Bidaud(2010 : 37)는 un marbre de Paros가 ‘멀어짐’의 개념과 특성 부여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기술한다. 이 표현에서 전치사 de는 분명히 출신지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도 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보이고 있다. 어떤 하나의 파로스 대리석이라는 물건은 ‘파로스 산 대리석’이라는 부류의 물리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리석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휘와 문법이 뚜렷한 경계가 없는 연속체를 이루고 있으며(앞의 각주 12번을 참고), 어떤 표현의 의미가 전형적인 것에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있다고 여기는 인지언어학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제3장에서 전치사 de의 다양한 쓰임을 분류하여 기술하며 분석하고 제4장에서 그 분석 내용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치사 de의 다의성은 전치사 de가 시공간의 영역에서 출발점을 표시하는 동태적 개념을 가지지만 그와 같은 동태적 ‘멀어짐’의 개념이 정태적으로 발현되는 경우에는 특성 부여의 개념을 갖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흔히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쓰임은 이러한 동태적 개념과 정태적 개념이 모두 퇴색되고 극도로 문법화되어 내재적 관계의 개념만 가지게 되는 경우인 것이다.

향후에 본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Il est facile d'apprendre le français와 같은 비인칭 구문에서 전치사 de가 어떤 내재적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예문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Le français est facile à apprendre에서 전치사 à의 쓰임을 비인칭 구문의 de와 연관지어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와 같이 전치사 de와 à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Cette voiture est à Jean과 La voiture de Pierre est rouge에서 전치사 à가 나타내는 소유 관계와 전치사 de가 나타내는 소유 관계를 비교하는 것도 두 전치사의 의미 구조를 연구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Achard (Michel), *Representation of Cognitive Structures*, Berlin: Mouton de Gruyter, 1998.
- Bidau (Samuel), “Le problème du signifié des prépositions « à » et « de » en français et dans quelques langues romanes”, *Cédille, revista de estudios franceses* n° 6, 2010.
- Bosredon (Bernard) & Tamba (Irène), “Verre à pied, moule à gaufres : préposition et noms composés de sous-classe”, *Langue française* 91, 1991.
- Brunot (Ferdinand) & Bruneau (Charles), *Précis de gramm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Masson, 1933.
- Dictionna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Paris: Librairie Larousse, 1971.
- Gougenheim (Georges), “Y a-t-il des prépositions vides en français ?”, *Le Français moderne* 27, 1959.
- Grevisse (Maurice) & Goosse (André), *Le bon usage, Grammaire française*, 15<sup>e</sup> édition, Bruxelles: De Boeck, Duculot, 2011.
- Harrap's Shorter Dictionnaire Angalais-Français/Français-Anglais*, Edinburg: Harrap, 1996.
- Langacker (Ronald W.),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1999.
- Langacker (Ronald W.), *Cognitive Grammar : A Basic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Langacker (Ronald W.), *Investigations in Cognitive Grammar*, Mouton de Gruyter: Berlin, 2009.
- Le Nouveau Petit Robert,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Dictionnaire Le Robert, 1993.
- Riegel (Martin), Pellat (Jean-Christophe) & Rioul (René), *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4.
- Shyldkrot (Hava Bat-Zeev) & Kemmer (Suzanne), “La grammaticalisation

des prépositions : concurrence et substitution”, *Revue Romane* Bind 30-2, 1995.

Tyler (Andrea) & Evans (Vyvyan),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 -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Vandeloise (Claude), *L'espace en français*, Paris: Éditions du Seuil, 1986.

Vandeloise (Claude), “Présentation”, *Langages* 110, 1993.

❖ ABSTRACT

## The Semantic Structure and Grammaticalization of the French Preposition *de*

Park, Jung Joon

This study is about the French preposition *de*. This preposition is considered to have no meaning in the French language, and to have only the grammatical function in its use. This study begins with doubts about such views regarding this preposition. We organize and classify general descriptions of the uses of this preposition. The uses are classified as ‘expressing starting point,’ ‘giving characteristics’ and ‘performing grammatical functions’ and this data is analyzed in terms of the associated cognitive grammar. In the case of expressing the starting point, it is assumed that the trajector moves from the starting point, to the destination point, in the domain of space and in the domain of time. Therefore, it is noted in this case that the preposition *de* has a dynamic concept. On the other hand, it is significant to understand that the preposition of the ‘giving characteristics’ defines an outline of a particular class by giving the class's characteristics. The preposition *de* has a static concept in this case. For the preposition *de* which introduces the infinitive, all of these dynamic and static concepts are faded and extremely grammaticalized.

Key Words : French preposition *de*, grammaticalization, polysemy, image schema, cognitive grammar

■ 논문접수일 : 2018. 02. 10

■ 심사완료일 : 2018. 02. 28

■ 게재확정일 : 2018. 03. 01